

# 이통사 '보조금 폭탄' '시장 교란' 일파만파

가입자 유치를 노린 이동통신사의 잇단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휴대폰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부터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통사들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정책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을 노려 차익을 챙기는 '폰팔이'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휴대폰 유통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4일 스마트폰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는 '3·04 대란'이 터졌다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누리꾼들의 '좌표(좌값)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점포'가 어디냐는 글로 도배됐다. 결국 일부 휴대폰에만 75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돼 '대란'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났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2·11 대란', '2·26 대란' 등은 해당일에 이통사들이 대량의 보조금을 풀었다는 의미다. 실제 대란이 발생한 날에는 아이폰 5S,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LTE-A, G2 등 최신 스마트폰에 70~10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이 붙어 이들 기준은 1만~20만원대

지난달 두차례 이어 이달 또 보조금 풀어

"영업정지" 소문에

가입자 유치 혈안

대리점 심야 영업

불법 '폰팔이' 극성

(할부원금 기준)에 판매됐다.

'대란'이 연일 발생하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법적한도(27만원)를 넘어선 보조금이 잇달아 풀리면서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과열 지표인 2만4000건을 넘겼다. 특히 25일에는 총 4만1690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통사가 관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대란은 이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오전 또는 늦은 밤 '반짝 적'으로 일부 소비자가 '황제'를 하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심야에 대리점 문을 열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올려 극소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불법보조금을 노려 처음부터 중고시장에 되팔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폰팔이'가 기승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돌아갈 보조금 혜택이 일부 '폰팔이'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폰팔이'들은 친지들의 명까지 빌려 대란이 발생할 때 여러 대를 개통한 뒤, 의무사용기간(3~4개월)을 채우고 중고시장에 되팔아 대당 2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같은 제품이 10~20만원도 아닌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누가 정상가를 주고 스마트폰을 사려 하겠냐"며 "이통사들이 나서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 이번 주중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기자 exian@kwangju.co.kr

## 음주사고 뒤 달아난 경찰관 파면

광주경찰청 징계위

직원 회식 자리 뒤 동료 여경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에 대해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옆 자리에 동승했던 동료 여경에 대해서는 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의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음주사고를 낸 뒤 달아난 관산경찰소속 김모(42) 경위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또 김 경위에 함께 탑승했던 송모(여·32) 경사에 대해서는 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송 경사는 김 경위가 도중에 하차한 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집까지 직접 운전

한 혐의도 인정됐다. 송 경사의 경우 경위 임용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승진 임용이 취소된다.

김 경위는 지난달 4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인근 도로에서 송 경사 소유의 차량을 대신 몰고 2k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남부경찰청의 김 경위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송 경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는 음주 운전과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한 징계이며 송 경사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군의회 부의장이 염전근로자 '책임'

경찰, 신안군의회 임진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근 특별수사대는 4일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박모(59) 부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부의장은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부의장이 평소 7~8명가량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임

금체불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박 부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박 부의장이 지난달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해당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박 부의장은 경찰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박 부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8분 해질 18시 31분 달출 09시 10분 달정 22시 52분

**미세먼지 '보통'**

맑지만 바람 강한 곳 있겠다.

광주	구름조금	1/8℃
목포	구름조금	1/6℃
여수	구름조금	4/10℃
나주	구름조금	0/8℃
완도	구름조금	2/6℃
구례	구름조금	1/10℃
강진	구름조금	2/6℃
해남	구름조금	2/6℃
장흥	구름조금	1/7℃
순천	구름조금	4/11℃
영광	구름조금	0/7℃
진도	구름조금	2/5℃
전주	구름조금	1/8℃
군산	구름조금	1/7℃
남원	구름조금	1/8℃
옥산도	맑음	3/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5~2.5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2.0~3.0m 관심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목포 04:53 09: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17:05 22:1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1:44 0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00:00 17:45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3/9	-2/8	-1/9	0/11	2/12	3/14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료·장례비 지원

올 상반기 시행 임박 예고 가 지급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달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만 거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비 지출 내용 서류를 참고해 심비

질병관리본부에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질병 초기에 사망해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유효기간 안에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지원 예산으로 111억원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동구장애인복지관 개관**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 등 내·외빈 20명이 4일 광주 동구 서석동 동구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면적 2228.24㎡)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상담실·운동재활실·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내년 수능영어 듣기평가 5문항 줄어든다

대신 읽기평가 늘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은 전년도보다 듣기가 5문항 줄어든 대신 읽기가 5문항 늘어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영역 학습 안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형별 문항 수를 공개했다.

2년 만에 다시 통합형으로 돌아온 2015학년도 영어영역의 총 문항 수는 45문항, 시험시간은 70분으로 전년도와 같다. 그러나 듣기 문항이 줄어든 만큼 듣기평가 시간은 25분으로 5분 축소됐고 그만큼 읽기 시간이 늘었다. 유형별 문항을 보면 듣기에서 대의 파악(5→3문항), 세부사항(9→7문

항)이 각각 2문항, 간접 말하기는 1문항(6→5문항)이 줄어들었다. 수준별 수능이 시행됐던 2014학년도 영어 A형의 '지도를 활용한 길 찾기'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대의과와 유형에서 '대화·담화 주제' 문항은 2개에서 1개로, 세부사항 유형은 '한 일/할 일/부탁할 일'과 '담화 내용 일치/불일치' 문항이 각 2문항에서 1문항으로 감소했다.

읽기에서는 대의과와(3→6문항)과 간접 쓰기(3→6문항)가 각 3문항, 세부사항(2→4문항)이 2문항 늘었다. 문법·어휘(3문항)는 기존과 같고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상호작용(빈칸추론)은 7문항에서 4문항으로 3문항 감소했다.

**유생촌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특별한 혜택  
 •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맛  
 • 중·일 양식기호와 지중해 허브 음식  
 • 친환경 무공해 신선농산물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 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거사공기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피스, 테코타일(역사각형), 테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 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